

목차

해외소식

- 04 **나마스떼, 등게스와리**
가난한 천민들의 목마름 해소하다 | 김재령
- 08 **살라맛, 민다나오**
민다나오 JTS 센터 준공에 부쳐 | 이원주
까나안학교 첫 졸업생 배출 | 송현자
- 12 **쫄리읍쑤어, 캄보디아**
희망을 위한 첫걸음 | 박주선

긴급구호

- 15 **아이티지진 참사 지원**
아이티구호 1차 지원 마무리 | 박지나

국내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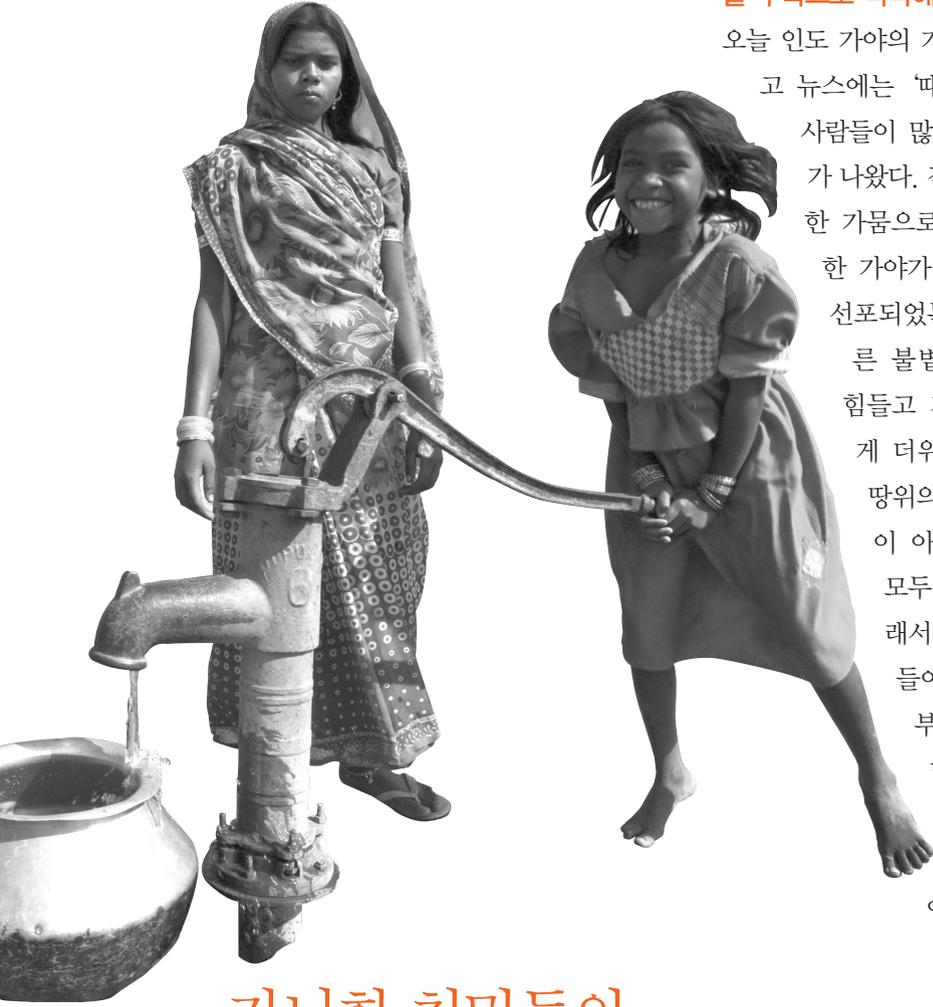
- 18 **함께 나누는 사랑**
2010년 첫번째 선물
- 22 **사랑이 있는 풍경**
두북어르신 나들이는 내 잔치였다 | 송동현

나눔회원소식

- 26 **인터뷰**
신명(神明)은 자신의 존재가 밝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 편집부
- 30 **새나눔회원 한마디**
오늘 첫 만남입니다 | JTS
- 31 **활동터 소식**
인도 · 필리핀 · 국내
- 36 **나눔회원 알림판**
새나눔회원 · 특별후원금 · 나눔저금통

물 부족으로 각박해진 사람들

오늘 인도 가야의 기온이 45℃를 넘겼고 뉴스에는 '때 이른 불볕더위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작년 여름에도 극심한 가뭄으로 등게스와리가 속한 가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올해도 때 이른 불볕더위가 사람들을 힘들고 지치게 한다.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땅위의 생명체만 힘든 것이 아니라 땅속의 물도 모두 고갈되고 만다. 그래서 평지인 가야 주민들이 물이 부족해서 정부에 거칠게 항의한 일도 있었다. 평지인 가야도 물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즈막한



가난한 천민들의 목마름 해소하다

지금 동게스와리의 가난한 주민들이 더위와 물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상황이 열악하니 사람들의 심성도, 인도 특유의 여유와 너그러움을 잃고 각박해지고 있다.

산이 있는 동게스와리는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한국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물이 풍요로우면 사람들의 심성도 너그러워지는데 물이 부족하니 물로 인한 다툼이 마을에서 많이 일어난다. 인도에서도 가장 열악한 동게스와리! 더위와 추위, 물 등 자연 조건이 악화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지금 동게스와리의 가난한 주민들이 더위와 물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상황이 열악하니 사람들의 심성도, 인도 특유의 여유와 너그러움을 잃고, 각박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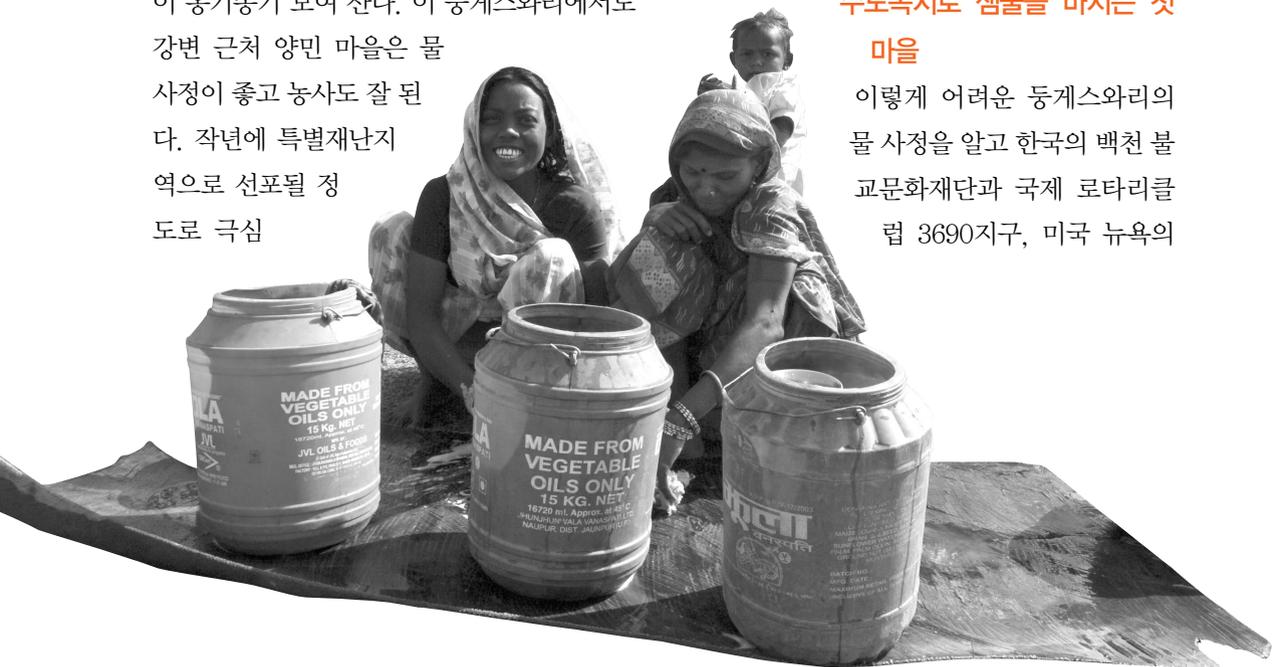
물 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동게스와리

나즈막한 산이 있는 동게스와리에 16개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산다. 이 동게스와리에서도 강변 근처 양민 마을은 물 사정이 좋고 농사도 잘 된다. 작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극심

한 가뭄이 이 지역을 강타했어도 돈 있는 양민들은 수중 펌프 및 양수기 등을 이용해서 자기 논에 쌀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양민들이 자기 논에 농사를 지으려고 많은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 산 근처에 있는 가난한 천민 마을의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서 우물은 바다가 드러나고, 손펌프도 메말라갔다. 6월부터는 인도의 우기철이 시작된다. 비가 오면 바닥이 드러난 우물도 물을 품고 손펌프도 힘찬 물줄기를 주민들에게 선사하므로 주민들의 고통도 많이 덜어진다. 문제는 5월 말까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가난한 천민이다 보니 마을 주민들이 손펌프를 설치하거나 우물을 만들 돈이 없다는 것이다.

수도꼭지로 샘물을 마시는 첫 마을

이렇게 어려운 동게스와리의 물 사정을 알고 한국의 백천 불교문화재단과 국제 로타리클럽 3690지구, 미국 뉴욕의





후원자님들 등 많은 분들이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후원하였다. 백천 불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안투비가에 샘물을 설치하였다. 안투비가란 “끝마을”이란 의미를 가진 마을인데 전체 주민이 불가촉 천민이고 문맹이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천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만든 마을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고, 땅 속에는 석탄층이 있어서 시키면 물이 손펌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주민들은 힘든 채석일로 생계를 연명하는 그야말로 “끝마을”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산속에 극심한 건기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서 이 샘물을 끌어와 주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마을주민들과 인도 JTS 건축부 기술자들이, 한 달 넘게 공사를 해서, 산속에 있는 샘물을 여과해서 파이프를 통하여 마을에 있는 물탱크에 공급하고 이 물을 수도꼭지를 통하여 마을주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공사를 했다. 샘물의 수량이 풍부하고 물맛도 좋으니 마을 주민들은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물로 인한 고통을 많이 겪는 아주머니들이 열성적으로 공사에 참석하였고,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도 샘물의 웅변치는 것을 도와주어서 우물과 손펌프가 고작인

동게스와리에 최첨단 식수시설을 만들 수 있었다. “끝마을”인 안투비가가 동게스와리에서 최첨단 식수시설인 수도꼭지를 통하여 물을 마시는 “첫마을”이 되었다.

세계 물의 날에 우물을 완성하다.

안투비가 옆에 아자드비가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도 안투비가 마을처럼 전체 주민이 불가촉 천민이고 몇 명을 제외한 주민 대다수가 문맹인 마을이다. 이 마을도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땅 속에는 철이 있어서 손펌프의 물은 빨간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다. 그래서 마을에는 손펌프가 여섯 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손펌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는 않고 빨래를 하거나 몸을 씻는데 사용한다. 주민들은 우물의 물을 마시는데 우물에는 나뭇잎 등이 떨어져서 물이 혼탁하고, 몇 개의 우물은 수량도 매우 적어서 주민들이 건기 철에 많이 힘들어하였다. 그래서 국제 로타리클럽 3690 지구의 후원으로 마을에 우물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인도에서 6년간 건축을 하였지만 우물 공사는 처음이었다. ‘규모가 큰 건물도 지어봤는데 이 정도 우물이야 쉽게 공사할 수 있

달포가 넘게 진행된 우물 공사 준공식은, 후원을 한, 국제 로타리클럽 3690지구에서 오신 분들과 인도 가야의 로타리클럽 회원들, 마을 주민 등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겠지.’라고 우물 공사를 쉽게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땅을 파고 또 파도 물이 나오지 않고, 석회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땅을 자꾸 파다가 땅 속에 있는 철층을 건드리면 이 우물물은 주민들이 마실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솔직히 마을 주민보다 내가 더 기뻐했다. ‘드디어 마을 주민에게 깨끗한 우물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환호성이 내 마음 속에서 메아리쳤다. 달포가 넘게 진행된 우물 공사 준공식은, 후원을 한, 국제 로타리클럽 3690지구에서 오신 분들과 인도 가야의 로타리클럽 회원들, 마을 주민 등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우물을 만든 날은 바로 “세계 물의 날”이었다.

가난한 천민들 고통의 수위 올라가고 땅 속 물 수위는 내려가고

사람은 음식을 며칠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하지만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기상이 변으로 이곳 동계스와리도 작년에 50년만에 최고로 더운 여름을 보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닥쳐서 마을 주민들은 주식인 쌀농사도 짓지 못했다. 그래서 올해 쌀값이 폭등해서 주민들의 생활고가 작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또다시 10년만에 최고 더운 4월을 보내고 있다. 기온은 올라가고 쌀값도 올라가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올라가고, 가난한 천민들의 고통 수위도 덩달아 올라가는데 땅 속의 물 수위는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있다.

가난한 천민들의 목마름을 해소

이상기후와 지대가 높아서 물문제가 심각한 동계스와리에 많은 분들이 후원해서 올해 최소 20개 이상의 손펌프를 설치할 수 있고, 10개 이상의 우물을 만들 수 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만약 많은 분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동계스와리 주민들은 매우 덥고 목마른 여름을 보냈을 것이다. 50℃ 가까운 폭염에 우물을 파고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일이 쉽지 않은 앓을 것이다. 그리고 지대가 높은 동계스와리에 건기 철에도 마르지 않은 손펌프를 설치하는 것 또한 쉽지 앓을 것이다. 하지만 후원하신 분들의 마음이 ‘가난한 천민들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이 정도 더위에 나와 우리 건축부 기술자들, 마을 주민들은 50℃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우물을 만들고 손펌프를 설치할 것이다. 이 뜨거운 열정으로 갈증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것이다. ✨

글 김재령 | 인도JTS



민다나오 JTS 센터 준공에 부쳐

농업기술훈련 센터

민다나오 제이티에스는 문맹퇴치를 위해 2003년부터 지난 7년간 산간 오지 마을에 학교짓기 프로젝트를 계속해왔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문맹의 원인이 지역적인 소외와 종교간의 대립, 종족간의 분쟁으로 인한 고립 외에도 빈곤도 크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빈곤퇴치 없이는 문맹퇴치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다나오 JTS는 농업기술훈련 센터를 설립하여, 민다나오 각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농작물, 특산물 등을 재배할 수 있는 농업기술 개발과 농부의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2006년 10월에 토지 4.8ha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이 센터 설립으로 지도자와 청소년 의식개혁 프로그램을 통한 자립심과 협동심 그리고 주인의식의 배양과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건축 공사는 2009년 5월에 리보나 시청으로부터의 건축 허가를 받고 6월에 공사를 시작, 올해 3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12m × 24m에 3층 건물이고 이 공사를 위하여 참가한 사람은 공사 초반에는 그 인원이 40여명, 하반기에는 80여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공사가 순조롭게 시작되어 계획된 공정보다 한 달 가량을 앞섰습니다. 그러나 매일 1~2시간씩 쏟아지는 비로 공사가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의 크리스마스 분위기, 기술자와 보조 인력들 간의 대립, 기계장비 수리나 부품 교체가 어려워져서 공정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우기 이런 규모의 공사는 리보나 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 지역 일대에서 기술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전기 및 상하수도 배선 시공 기술도 낙후해서 공사가 더디 되거나 작업 자체를 다시 하는 등 이로 인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다시 한 번 이들에게 근대적 기술 지원, 작업 훈련 등이 절실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난 3월 21일에는 토니 대주교님과 법륜스님, 지역 교육청장, 리보나 시청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민다나오 센터의 준공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JTS는 이를 바탕으로 민다나오에 발전된 농업 기술 전수, 의식 개혁 프로그램, 마을 지도자 워크샵, 청년 리더 및 청소년 리더십 양성 프로젝트 나아가 기초 보건 지원 등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분쟁지역으로 알려진 민다나오에 제이티에스가 학교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이제는 농업기술훈련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다나오에 희망과 개발, 발전의 이미지를 심어가고자 합니다. 후원자들의 많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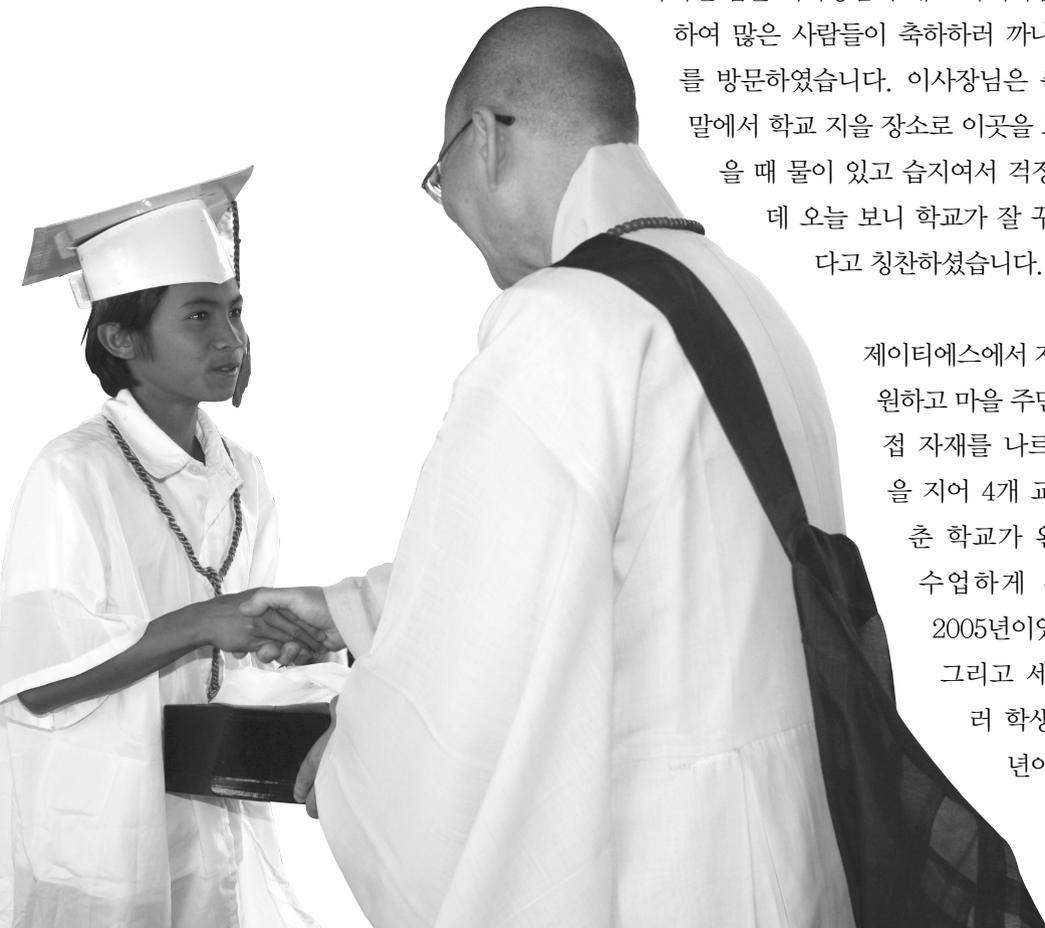
글 이원주 | 민다나오JTS

까나안 학교 첫 졸업생 배출

까나안 학교에서 첫 졸업생 배출

아치형 다리를 건너 학교로 올라가는 길은 나무와 꽃들로 잘 가꾸어져있어 방문객들을 기쁘게 합니다. 까나안 학교에서 처음으로 졸업생들이 배출되기에 제이티에스 설립자이신 법륜 이사장님과 대표 박지나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까나안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사장님은 축하인사말에서 학교 지을 장소로 이곳을 보여주었을 때 물이 있고 습지여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보니 학교가 잘 꾸며져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제이티에스에서 자재를 지원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재를 나르고 건물을 지어 4개 교실을 갖춘 학교가 완공되어 수업하게 된 것이 20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가게 되자 주민들은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31명으로,
모두가 탈라각이나 말라이발라이, 가가얀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5학년, 6학년생이 수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제이티에스에서 추가로 교실 두 칸을 짓도록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을 지도자의 지도력과 열성, 주민들의 협조로 학교건물이 완성되고 교육청의 지원과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여 완전한 초등학교가 되었고 처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31명으로, 모두가 탈라각이나 말라이발라이, 가가얀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졸업 선물로 이사장님께서서는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구두와 볼펜을 전해주셨습니다. 선물을 처음 받게 된 남학생은 마침 슬리퍼가 다 떨어져서 즉석에서 구두로 갈아신었습니다. 그 다 떨어진 슬리퍼를 보며 학생들과 축하해주러 온 손님들, 학부모들 모두가 한바탕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이사장님은 “학교를 짓고 학교에 보내 준 학부모님들, 그리고 열심히 가르쳐 준 선생님들의 은혜로 이렇게 졸업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열심히 공부하여 은혜를 다시 사회에 갚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을에 학교가 없어 어린 아이들이 6킬로를 걸어서 학교에 다니기엔 힘들어 중도에 그만 두어야했던 까나안 마을, 오늘 이렇게 첫 졸업을 축하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학교를 지어달라고 먼저 요청하고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여 학교 건물을 짓고 추가로 교실 두 칸을 더 지원하게 한 마을 지도자 서니 보이의 지도력과 마을 주민들의 협조, 그리고 교육청의 지원 선생님들의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딱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이 되어 주신 멀리 있는 후원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글 송현자 | 민다나오JTS

희망을 위한 첫걸음

캄보디아 오지 라타나끼리의 학교 건축



라타나끼리로 가는 길

라타나끼리에 가려면 프놈펜(캄보디아의 수도)에서 이른 아침 단 한번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를 번갈아가며 꼬박 10시간을 달려야한다.

그나마 7번 국도가 스텡트렝까지는 포장되어 있으나 스텡트렝에서 라타나끼리까지는 험한 비포장도로를 3시간을 더 달려야 하니 캄보디아에서도 쉽게 올 수 없는 곳이다.

이 비포장도로를 들어서면 정글 속으로 하얗게 적막함이 느껴진다. 이 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붉은 황톳길과 많은 나무들 그리고 드문드문 사람이 살 것도 같고 살지 않는 것도 같은 캄보디아 전통 나무집뿐이다. 붉은 황토먼지를 뒤집어 쓰고 도착하게 되는 곳이 라타나끼리 주도 반롱(Banlung)이다.

라타나끼리의 환경

라타나끼리는 인구가 15만 정도의 고산 산악지역이다. 캄보디아 북동쪽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베트남, 북서쪽으로는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캄보디아에 또 다른 산악지역인 몬돌끼리를 접하고 있어서, 주변이 산으로 둘러



라타나끼리의 가옥들

13/04/2010

인구 15만, 70%가 고산소수 민족이다.
이들은 고무와 캐슈넛 농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1달러 미만의 임금으로 생활한다.



러싸인 오지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경제개발이 늦고, 자연이 파손되지 않아서 원시적 자연경관을 좋아하는 외국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라타나끼리 주는 면적 10,789km²에 9개의 District가 있다. 인구는 151,000명 정도이며 이 중에 70%는 고산 소수민족이다. 그 외 30%는 캄보디아인, 베트남인, 중국인의 비율이다. 70%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은 크게 탐푸온(Kampuon), 크레웅(Kreung), 자라이(Jarai), 크라벳(Kravet), 브라오(Brao), 프농(Phnong), 카착(Kachak) 7개의 종족이다.

이 곳의 주요 경제적 생산물은 고무나무와 캐슈넛이다. 그래서 소수민족의 사람들은 고무 농장이나 캐슈넛농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간다. 2월에서 5월, 캐슈넛 수확기에는 하루 1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한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마을을 비우고 농장에서 일한다.

학교 건축의 필요성

이들 소수민족은 오랫동안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보유하고서 마을단위로 공동체를 형성

하여 같은 부족끼리 모여 살고있다. 대부분 캄보디아어를 할 줄 모르고, 마을의 몇몇 사람들만이 캄보디아어를 할 줄 안다. 따라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캄보디아어를 배우지 않으면 캄보디아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마을을 떠나서는 살아가기 힘들다. 그런데 이곳은 캄보디아 내에서 가장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교육 인프라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당수의 취학계층 어린이들은 마을에서 4~5km이상 험준한 산길을 걸어서 통학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학업을 포기하거나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나무로 지은 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1~2학년 정도까지 학교를 다닌다. 그런데 1학년 입학생의 70% 정도는 농사일을 돕거나 집안일을 돕기 위해 학업을 포기한다. 특히 여자들은 집안의 입을 털기 위해서 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부터 캄보디아 제이티에스는 5개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초등학교를 짓기로 하였다. 아이들이 문맹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결과를 얻는 경험이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힘이 될 것이다.



도록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에 다니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모아 제이티에스는 자재를 구매하고, 마을에서는 학교 부지를 마련하였고, 건축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라타나끼리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완공 후 교사들을 파견기로 하였다. 이 곳 주민들은 나무 외에 다른 자재로 건물을 지어 본 경험이 없어서 콘크리트 학교건물 공사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여 제이티에스가 콘크리트 건축이 가능한 기술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언어와 생활문화가 다르고, 세상과 소통 경험이 부족한 고산 부족민들의 학교건축이 결코 쉽지 않은 앓을 것이다. 주민들 또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열망으로 학교건축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결과를 얻는 경험이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제이티에스 또한 함께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

글 박주선 | 캄보디아JTS

아이티구호 1차 지원 마무리

구호물품 총 5차례 2,000가구에게 배분

JTS 후원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티 긴급구호 1차지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텐트촌과 임시천막의 아이티주민들의 삶

이번 아이티지원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진이 난 지역은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 포트토 프린스 (Port-au-Prince) 인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아이티는 지진피해 이전에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주민들은 매우 어렵게 살았습니다. 또한 지진 이후 지속적으로 여진이 계속 발생하여 주민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물가도 매우 높고, 지원물품을 살 수 있는 곳도 거의 없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임시로 만들어진 텐트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UN이나 NGO를 통해 아주 적은 양의 식량을 배급받기도 하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텐트촌의 상황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무너진 집터에서 이불천 조각으로 만든 임시 천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외부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은 삶에 대한 희망도 재건 의지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도미니카에서 구매한 지원물품과 그 운송

아이티 현지에서는 구호물품 구매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구호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충분한 물자구매는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 가난한데다가 섬이어서 외부에서 물자 수입도 어렵고, 자체 생산하기에도 적은 양이 아니어서 충분한 양의 구호물자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며칠간의 답사 끝에 다행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2,000 가구분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티까지 구매물품 운송 중에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UN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아이티까지 물품을 이동하려 했는데, 현지 물품회사가 대로변에서 물건을 신고 있을 때에 무장강도가 나타나서 UN책임자를 협박하였던 것입니다. 운 좋게도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어 물품은 아이티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 구매물품 |

- 쌀 : 45톤 / 2,000포 [50파운드(약 22.7kg)]
- 강낭콩 : 4.5톤 / 2,000포 [5파운드(약 2.27kg)]
- 식용유 : 7,570ℓ / 2,000통 [1갤론(약 3.79ℓ)]

도미니카에서 신고온 구호물품은 현지의 UN 창고에 보관하고, 분배지역까지 물자가 운송될 수 있게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 및 물자 분배는 현지 활동 중인 미국인 1명과 아이티 현지인 2명이 함께 했고, 물자 배분시 안전을 위해 볼리비아에서 온 UN 평화유지군 60여명이 지켜주었습니다.

JTS의 지원물품 분배와 현지인의 변화

물품 지원 지역은 지진피해가 컸던 수도 포트 프린스의 외곽지역으로, 외부지원이 없었던 지역을 추천받아 직접 답사한 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리더들과 자원봉사자가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가족 수와 피해상황, 생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지원을 확정된 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받을 수 있는 쿠폰

20일 가량의 넉넉한 식량지원을 받은 주민들은
여유가 생겨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알아보고 무너진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을 나누어주어 안전하고 질서있게 물품을 받
을 수 있게 했습니다.

| 물품 지원 가구 |

- 3월 15일(월) - City Ocayes : 450가구
- 3월 16일(화) - Delmas 31 : 529가구
- 3월 17일(수) - Anselma #3 : 250가구
- 3월 18일(목) - Santo 6-17 : 252가구
- 3월 20일(토) - Camp Juvanet : 519가구

저희는 총 5차례 2,000가구에 구호물품을
배분했습니다. 가구마다 쌀 50파운드와 콩 5
파운드, 콩기름 1갤론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지원한 식량의 양은 가구당 3~4주정도의 (4
인가족 기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양입니
다. UN 등 다른 지원들이 2~3일 정도 분량의
식량인데 비해 이번 JTS의 지원은 3~4주 분
량의 양이어서 주민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지원은 마을의 변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식량을 분배받았던
주민들은 당장 하루 이틀이 지나면 식량이 떨어

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끼니걱정으로 다른 것
에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주 이상
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식량을 분배
받은 주민들은 당장의 끼니걱정이 없어지면
서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알아보고, 무너진 집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의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4월 봄이 되었습니다. 겨울의 매서움을
견뎌낸 씨앗은 봄이 되면 어김없이 대지를 뚫
고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지진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티는 아직 겨울
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서운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찾아옵니다. 아이티 주
민들에게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다
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
탁드립니다.

JTS는 4월 2차 지원을 위해 다시 아이티로 출
발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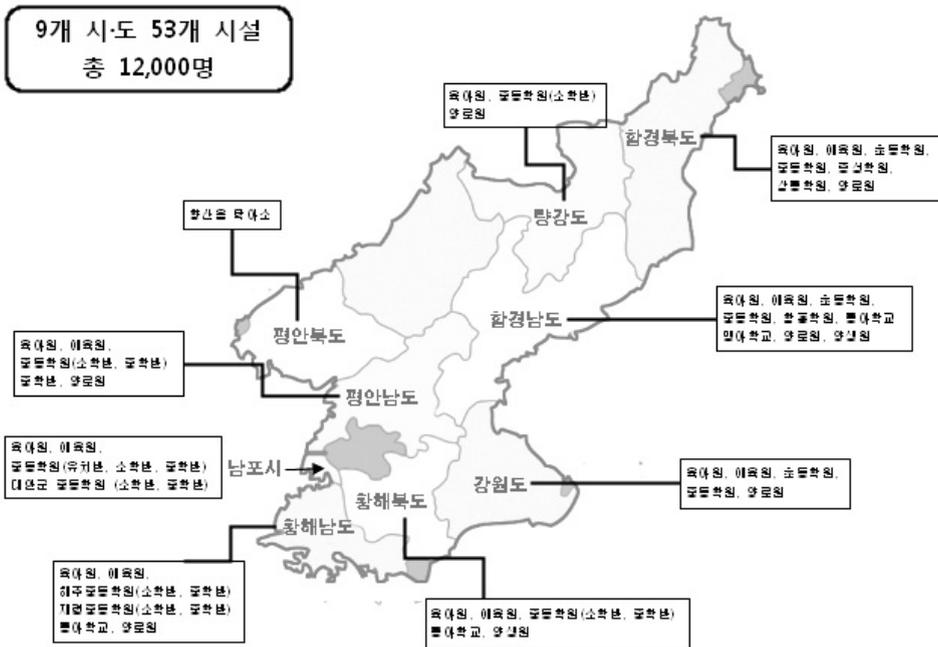
글 박지나 | JTS대표



2010년 첫번째 선물

“친구야, 밥먹자!” 대북지원물품 선적식

JTS는 4월 6일(화) 오후 2시 인천항에서 대북지원물품 선적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JTS 홍보대사인 방승인 김병조님의 사회로 이사장 범륜스님, 김명혁 목사님(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강변교회 원로목사)을 비롯 JTS 후원회원 및 활동가, JTS 홍보대사로 배우 한지





민님과 드라마 작가 노희경님, 그리고 이번 지원에 함께한 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선적식 행사는 범윤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김명혁 목사님의 격려사, “이번 지원을 통하여 북녘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램과 이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신 후원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는 한지민님의 소감이 있었다. 그리고 JTS의 오랜 후원회원인 ‘동그라미 유치원’ 원생들의 공연 ‘친구야 밥먹자’가 뒤를 이었고, ‘희망의 박 터트리기’ 행사로 마무리 지어졌다.

지원 물자는 밀가루 300톤을 비롯해서 두유, 분유 등 식량 및 생필품, 교육기자재 등으로 컨테이너 60대 분량이다. 이 물품들은 4월 10일 인천항을 출발하여 4월 12일 남포항에 도착하여 북한 전지역(평양과 양강도 제외)의 전체 53개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특수학교 12,000여명 원생들에게 전달된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은 자연재해 등 내부적인 원인과 국제관계의 악화 등으로 외부지원이 거의 없었던 관계로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지원되는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특수학교 등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이나 원활한 지원이 되지 않는 열악한 곳이다.



JTS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북한 전역의 9개 시·도 53개 시설의 12,000여명에게 식량, 생필품, 교육기자재를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JTS 활동가가 물품이 지원된 전 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물자의 배분을 확인하고, 아이들의 성장상태를 점검예정이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JTS의 지원은 북한 어린이아이들의 성장 발육 증진과 생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번 지원은 2010년 JTS의 첫 번째 대북지원이기도 하지만, 이때까지의 대북지원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인도적 지원을 통해 형성되었던 남북간의 신뢰도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크게 위축되어 지원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JTS의 지원으로 한동안 막혀있던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지원물품 : 식량, 생필품, 교육
기자재(컨테이너 60개 분량)**

- 식량 : 밀가루, 두유, 이유식, 전지분유, 설탕, 콩기름, 소금, 라면, 초코파이 등
- 생필품 : 이불, 빨래비누, 세수비누, 고무장갑, 수건, 양말 등
- 교육기자재 : 신장계, 체중계, 공책, 연필, 스케치북, 줄넘기, 인형 등

지원대상

- 북한9개 시·도 53개 고아원,
양로원,장애인 특수학교 12,000명



에 활로가 되었으면 한다.

둘째 그동안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몇몇 지역에만 국지적으로 진행된 것에 비해, 이번 지원은 북한의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JTS 역시 그동안 고아원, 양로원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함경북도, 강원도, 양강도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진행해왔다. 그러나 JTS의 꾸준하고 정확한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JTS와 북측이 상호신뢰하게 되었다. 이번의 전국적인 지원은 UN을 포함하여 국제단체에서도 유래 없던 사례이었다. JTS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더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걸음을 더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한 번만의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기의 어린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식량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성장 발육상황을 측정하여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의 체계를 통하여 북한의 어린이들이 안정적인 성장 발육 증진과 생활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2010년에도 북한의 식량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 합니다. JTS는 올해도 북한의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두북어르신 나들이는 내 잔치였다

정토회 행사대학원 송동현



어르신들을 모시는 자원봉사자의 살가운 손길

두북 어르신 잔치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라는 숫자는 늘 1이라는 숫자보다 안정적이다. 처음하는 일은 낯설거나 잘 몰라서 혹은 알아도 이런 저런 실수들을 하게된다. 처음이라 그런 것일텐데, 두 번째 한다고 해서 실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수를 해도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누군가의 잔치’에서 ‘내 잔치’가 되기 때문이리라.

모든 행사가 그렇듯이 이번 행사도 사전준비가 힘들었다. 당일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기로 한 구례 화엄사와 그 아래 식당 등을 한 차례 답사했고, 수차례 큐시트를 수정했다. 반복되는 회의를 통해 미진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논의했고, 두북 정토수련원 총무님(법성행 보살님)과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일도 사전에 나누어 해당 스태프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했고, 어르신들께 드릴 선물도 오랫동안 고민하여 정성스레 준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당일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상했더라도 챙기지 못했던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 당황하거나 동요하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가 이번 행사에 임하는 관점이 ‘행사의 성공’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마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 한 가지, 우리 가슴을 졸이게 했던 그 단 한 가지는 날씨였는데, 전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행사 당일 아침에도 온 대지를 적시고 있었다. 내리는 비와 함께 수은주도 푹 떨어졌는데,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봄나들이’를 하시기에 안성맞춤이라할 만한 날씨는 아니었다.

날씨 탓에 어르신들 몇 분은 끝내 함께 하지 못했다. 차량 보험이며, 준비한 선물과 음식들이 주인을 잃었다는 것 말고는 달라질 것이 없었지만, 마음은 못내 아쉬웠다. 행사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라면 느낄 수도 있을 법한 서운함이나 허탈함이 아니라, 몸이 불편해 함께 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다. 어르신들 아흔 두 분의 화엄사 나들이는 그렇게 시작했다.

온 세상을 축 늘어지게 만들었던 비의 위력은 오래 가지 않았다. 곧 비가 그치기도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 마음에 내리던 비가 그쳤기 때문이다. 비는 어차피 오는 것이고, 파티는 이미 시작했으므로. 원래 이런 행사의 백미는 이동하는 버스 안이다. 우리는 어르신들이 단 일 초도 심심하지 않도록 목청 높여 노래하고 몸이 부서져라 춤췄다. 아니, 그럴 각오였으나 실제로 그럴 필요는 없었다. 고맙게도 어르신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침잠시킬 것만 같던 비와는 무관하게 ‘놀 준비’를 단디(단단히의 경상도 방언)하고 오셨던 것이다. 그래서 우린 더 신이 났고, 손자 손녀뻘 되는 우리들의 재롱에 어르신들은 연신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처음에는 다소 촌스럽게 보이던 일명 ‘관광버스춤’도 이내 인기 아이돌그룹 f(x)의 ‘신상뽐춤’ 만큼이나 세련되게 느껴졌고, 어르신들의 거침없는(?) 애정표현도 나중에는 안 해주면 섭섭할



어르신들은 ‘놀 준비’를 단디(단단히의 경상도 방언)하고 오셨다. 그래서 우린 더 신이 났고, 손자 손녀뻘 되는 우리들의 재롱에 어르신들은 연신 함박웃음을 지어보였다.



어르신 100여 명 구례 화엄사 나들이

정도로 익숙해졌다. 그렇게 파티는 벌써(!) 무르익고 있었다.

일정은 간단했다. 화엄사에서 법륜스님이 해 주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미리 예약한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하고 돌아오면 끝이었다. 이 간단함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대웅전 앞에서 법륜스님이 어르신들께 화엄사에 관련된 전설 등을 들려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일정대로라면 각황전에서 법륜스님께서 법문을 설하기로 되어 있었다. 미리 선발대로 화엄사에 도착해서 법회 준비를 총괄했던 나는 마음이 급했다. 연신 뭐라 중얼대면서 각황전 반대방향으로 걸어가시던 한 할머니를 붙들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이고, 우짜꼬. 내 힘들어가 안 이카나.”

미안할 일도 아닌데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난 진짜 죄송해졌다. 실제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니, 할머니! 이 간단한 일정도 집중 못하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옳기 때문이다. 그렇게 조심했지만 어느새 ‘행사의 성공’에 사로잡힌 나를 목격한 것이다. 오도 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계시는 할머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정해졌다. 애써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화장실 가시는 거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개안타.”

머쓱해진 나는 씨익 웃으면서 다시 말을 붙였다.

“절이 넓어서 힘드시죠? 계단도 너무 가파르고.”

“아이다. 이래 나오니까 좋기만 하구만. 바쁠 낀데 가서 일보소.”

더는 말을 못 붙이고 돌아섰다. 각황전으로 돌아오니 법륜스님께서 어르신들을 위한 축원을 하고 계셨다. 어르신들이 모두 앉을 수 있도록 깔아 둔 방석의 절반은 비어 있었다. 그 방석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저거 내가 다 깔았는데’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었다. 할머니의 교훈이다.

두북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흥겨운 파티는 이어졌다. 이럴 때는 정말 젊음이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훨씬 앞서서 체력들을 가지셨다. 지치지도 않고 웃고 즐기며 혼든다. 이럴 때는 바라만 봐도 흐뭇하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몇 안 되는 스태프들이 아흔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모시느라 힘들었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토끼가 손에 쥐고 있던 홍당무도 하나 텀으로 얻은 것 같아 흐뭇한 하루였다. 우리 손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행사도 성공적이었고, 어르신들도 아주 즐거워하셨다. 게다가 내게는 작지만 깨달음도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죽기 없지요! 내년에도 놀러 갑시다! 내가 모실게. ❀



두북정토마을

경남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두북정토마을’은 1994년 9월에 문을 열었고, 농촌지역 노인복지를 위한 정기적인 지원과 JTS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 정토마을의 운영은 부산과 대구, 마산, 울산 지역에서 온 자원활동가들의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신명(神明)은 자신의 존재가 밝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뷰 새신명나눔 기획국장 이은숙

정리 편집부

지난 4월 6일 JTS 북한 지원 선적식에 신명나는 우리가락이 인천항에 울려 퍼졌다. 사) 신명나눔 '서울풍물굿회'는 JTS의 선적식 행사에 우리가락으로 항상 흥겹게 해 주는 단체이다. 신명을 추구하고 자신에게서 흘러넘치는 밝음을 나누고자 한다는 JTS 후원단체인 신명나눔 기획국장 이은숙님을 만나보았다.



“ 신명나눔은 개인과 사회가 밝아지는 일에 후원하는 후원나눔과 전통문화 예술공연을 나누는 문화나눔 활동을 한다 ”



신명나눔은 개인과 사회가 밝아지는 일에 후원하는 후원나눔과 전통문화 예술공연을 나누는 문화나눔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먼저 문화나눔공연을 나누는 일인데요, 신명나눔 회원들이 주최하는 모든 공연에 시민들을 초대하기도 하구요, 판소리, 춤, 풍물, 마당극 기획공연과 신명나눔의 정기공연, 서울풍물재수굿 같은 다양한 공연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나눔은 공연을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가, 무, 악, 희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연국에서 준비한 공연들을 지원 단체와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판소리, 춤, 풍물, 마당극 등 기획공연과 신명나눔 정기공연, 서울풍물재수굿같은 다양한 전통예술 장르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공연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고 특히 후원단체의 공연

요청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을 위하여 소리, 춤, 풍물 영역의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전통문화예술강좌를 열어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기도 하지요.

또한 후원나눔 활동을 하는데요, 탈북청소년 셋넷 학교, 새터민 개인 지원, 한국JTS 북한어린이 돕기 등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통일나눔 활동과 자이투나 난민 학교 건립, 푸른 시민연대, 한국JTS 해외 긴급구호, 재한 몽골학교 등 지구를 하나로 이어주는 평화나눔 활동을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은 회원님들의 정기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명나눔의 회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가요?

학생, 주부, 교사, 직장인, 목사, 약사,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와 뜻이 같이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는 신명나눔 하면 풍물패로만 알고 있는 데요?

저희 단체는 가,무,악,희 즉 소리, 춤, 풍물, 마당극 각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단체는 사)신명나눔으로 공연국, 사무국, 기획국, 공연국을 두고있고 공연국안에 가, 무, 악, 희 각분과를 두고 있답니다

여러 분과가 있는데 그럼 연습은 어떻게 하 는가요?

평상시는 각 분과별로 연습이 이루어지고 공연 이 있을때 모두모여 연습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느라 공연이 무 척 많다고 들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공연 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작년 10월 11일(일) 중앙대 부속 중학교에서 (사) 좋은벗들 이 주관한 제7차 통일체육축전 이 있었습니다. 4,5백명 규모의 전국 새터민이 모여서 신나는 놀이마당을 벌였는데요, 그 행사에 저희가 초대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할 때는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어서 긴줄넘기, 줄다리기, 달리기, 박터트리기, 노래자랑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의 흥을 돋우기 위해 달려간 사)신명 나눔 서울풍물굿회 회원 9명도 악기를 매고 신 나게 풍물을 울렸는데 썰렁~~~반응이 너무

“ 저희는 신명나눔 행사와 서울풍물굿회 공연에 새터민 분들을 자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와 정서의 공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지더군요. ”

없더군요.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니 북한에는 풍물이 없습니다.

가락도 낮설고, 풍물패를 접해보지 않던 새터민 분들이라 악기소리가 시끄러워 귀를 막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신명나눔 행사와 서울풍물굿회 공연에 새터민 분들을 자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와 정서의 공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지더군요. 올해 체육축전에도 갈 예정이에요. 올해는 한분이라도 어깨춤을 함께 추길 바랍니다.

또, 그분들이 즐기시는 노래며 춤도 함께 배워 봐야겠어요. 함께 웃으며 바라볼 수 있겠어요. 올해 축전이 기다려집니다.

신명나눔의 올해 계획은 무엇인가요?

올해는 통일, 평화의 이념에 맞는 후원단체 늘리기와 우리의 소리, 춤, 장단 기준으로 공연 작품을 기획하여 공연을 올릴 예정입니다.

또한 회원들과의 문화예술 강좌나눔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고 지원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神明은 자신의 존재가 밝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흘러넘치는 밝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밝음은 어둠을 사라지게 하며, 아름다운 선택이 됩니다.

후원나눔

개인과 사회를 밝히는 일에 후원합니다.

- ♥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통일나눔.
- ♥ 전쟁으로 고통받는 지구인을 돕는 화평나눔.
- ♥ 이주노동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동체나눔.
- ♥ 기아와 빈곤을 치유하는 희망나눔.
- ♥ 나라 안 소외된 슬픔을 위로하는 봉사나눔.
- ♥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꿈나무 후원나눔.

공연나눔

공연을 나눕니다.

- ♥ 서울풍물굿회원들의 봉사로 이루어집니다.
- ♥ 후원단체의 공연 요청시 적극 참여합니다.
- ♥ 서울풍물굿회의 모든 공연에 초대합니다.

오늘 첫 만남입니다

정리 JTS 회원팀

JTS 홈페이지(www.jts.or.kr)에서 후원신청을 하면서 JTS에 바라는 점을 기록한 후원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잘 담아 활동하겠습니다.

지금껏 돕고 싶었음에도
믿을 만한 곳을 찾기 힘들
었습니다.

JTS를 알고 한걸음에 와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김지희

도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쉽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내놓은 새뱃
돈입니다. 아낌없이 내놓
는 아이들을 보며 또 배
웁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식

이런 단체가 있는 줄 최근
에 알았습니다. 아이의 백
일기념으로 북한의 어린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개
인을 대신하여 좋은 일 부
탁드립니다.

-김준형

정말 고마워요. 작은 정성
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게 해
주셔서... 부처님께 우유죽
을 공양한 수자타 마을에
있는 작은 한국학교가 수
자타 아카데미인가요?

얼마 전 인도성지순례 때
봤거든요...인도... 맘이 너
무 아픈 나라였어요^^

-장혜진

북한 어린이들이 굶지 않
도록 적극 활동바랍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기아로
많이 죽고 있다는 소식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
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
산의 1%라도... 북한 어린
이들의 먹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하니, 어찌 동참하
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
기아에 허덕이지 않는 세
상을 꿈꿉니다.

-장춘희

인도소식

1 2010년도 초등교육 이수 학부모 모임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16개 마을 학부모 대상으로 초 등교육 이수를 위한 학부모 모임과 입학허가 절차가 진 행되었다. 또한 3월 29일부터 수자타 아카데미는 새 학 기가 시작되었으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서 900여명 전교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책가방과 책, 공책, 상급 생 교복을 제공하였다.

2 신입 상급생 1달간 트레이닝 진행

신입 상급생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 5일부터 4 월 5일까지 1달간 트레이닝이 진행되었으며, 유치원 방 문, 유치원 교사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유니세프에서 교사교육 프로그램, 스카 우트 수련이 5일간 진행되었다.

3 수자타 아카데미 상급생과 자원봉사자 선서식

수자타 아카데미 상급생 110명이 4월 6일 자랑스러운 상급생이 됨을 기뻐하며 선서식을 가졌으며, 또한 9,10 학년 자원봉사자 14명을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16일 까지 수련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선서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 여 선서문의 의미를 새기고 함께 낭독하는 자리를 가졌 다. 선서식 이후에는 자원봉사 업무 발표가 이어졌다. 앞으로 유치원, 학교, 병원 파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4 건축부원들, 우리는 노동의 주인!

인도 JTS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부의 상반기 수 련이 3월 15일(월) - 27일(토)까지 진행되었다. 2010년 마음가짐과 업무 기본 방침을 공유한 이번 자리는 정직 과 자율에 관해서 심도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왔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노동의 주인이 되는 길에 대



인도 · 필리핀소식



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행사였다.

⑤ 지바카병원, 저체중아에게 영양식, 머스타드오일 제공

지난 3월 23일, 5세 미만의 저체중아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하였다. 4개 마을 총 180명에게 분유와 달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머스타드 오일을 제공하였다. 2월초부터 3월 말까지 영양식 지급을 위하여 저체중아 조사를 실시, WHO 기준에 미달하는 저체중아를 산출하여 현재 정기적으로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영양식을 제공하는 날 엄마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필리핀

① 농업개발훈련센터 준공식

민다나오 JTS 농업개발훈련센터 준공식이 3월 20일에 있었다. 토니 대주교님, 부키드논 지역 교육청장, 지역 교육청장, 리보나 부시장, 다물록 시장, 다투 미키타이, 제이티에스 지원 마을 리더와 선생님 등 민다나오 현지인 100여 명과 장원로타리클럽 회장님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오신 13명, 필리핀 마닐라에서 12명이 참여하여 건축의 준공을 축하하였다. 한편으로는 7년간의 민다나오 JTS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이 건립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교육과 수련이 이루어져 민다나오에서의 평화로운 삶에 도움되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원하였다.

② 새로 파견된 활동가 두 명 현지 업무시작

지난 2월 24일 민다나오 JTS에 파견된 활동가 배명숙님과 김태윤님이 현지적응 및 교육기간을 거쳐 업무를 배치받아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도 · 필리핀소식

③ 사무실 이전

3월 30일 제이티에스 농업개발훈련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가까운 데오로 시내에 있던 사무실을 리보나에 위치한 센터로 옮겼다. 산골 마을이라 교통이 불편하고 전화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지만 민다나오가 가진 아름다운 자연을 매순간 느끼면서 민다나오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오버루킹 수도 시설 자재 지원

2월 28일 오버루킹에 수도 파이프 자재 배달이 있었다. 파이프와 수도꼭지, 연결관 등 가까운 데오로 시내에서 구입한 자재를 마을 주민들이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1시간 정도의 거리를 운반하였다. 그리고 파이프 외에 영어책과 칫솔, 치약 및 비누 등 보건위생 물품이 같이 전달되었다. 이날 전달된 모든 물품들은 이전 현지 활동가인 웰라가 일하는 회사(HABITAT)에서 지원받은 기금으로 구입하였다.



국내소식



① JTS, 문경 가은초등학교 차상위계층, 한부모보호 자녀 급식비 지원

JTS는 문경 가은초등학교에 예산 부족으로 급식에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있는 한부모보호, 차상위계층 자녀의 급식비와 우유값 10일 분을 지원했다. 총 지원 금액 2,575,300원이다. JTS는 이후에도 결식 아동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② 한살림경남, '생명 살림을 위한 나눔과 비움 캠페인' 기금 전달식

4월 13일 한국JTS 마산지부는 한살림 경남의 '생명 살림을 위한 나눔과 비움 캠페인' 기금 1,009,392원을 기부받는 행사를 가졌다. 작년에 진행된 '생명 살림을 위한 나눔과 비움 캠페인'은 제3세계 및 북한 어린이를 위한 나눔장터, 어린이 아나바다, 매장별 모금, 줌도리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을 하였다. 한 살림경남의 이사장님은 "기아와 질병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아시아의 어린이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회원들을 대신해서 전했다. 따뜻한 희망을 몸소 실천으로 전달해 주신 한살림경남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③ 울산 삼평초 '사랑의 저금통 전달'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에 위치한 삼평초등학교(교장김형일)는 각 학년 반이 1반밖에 없는 전교생이 84명의 작은 학교이다. 3학년 1반 주순희선생님의 주선으로 아이들의 고운 정성을 모아 저금통을 보내주셨다. "금액이 작아서 미안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저금통 돼지가 예쁘다고 나름 모금을 열심히 해줬어요"라고 선생님은 아이들의 마음을 전했다. 삼평초 어린이들이 보내는 희망의 선물은 아시아의 굶주리는 어린이에게 전달될 것이다.

4 한지민의 해피에너지는 아이티의 행복한 웃음입니다

이번 네이버 해피에너지에 배우 한지민씨가 JTS와 함께 아이티 지진 참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3월 23일부터 '한지민의 해피 에너지는 아이티의 행복한 웃음입니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백여만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5 '봉순이 언니네' JTS와 수익 1% 기부 협약식 가져

4월 19일 강남역에 위치한 식당 '봉순이 언니네'와 TS에 수익에 1%를 기부한다는 내용의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서 JTS는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사는 마을에 희망의 나무를 심어주는 녹색가게입니다' 라는 내용의 담겨 있는 현판을 전달했다.



6 마리플레르, 오렌지 캠페인

'마리플레르 오렌지 캠페인'을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JTS 사회공헌팀 전원이 마리플레르 4월호에 실렸다.



새나눔회원 _ 개인 · 단체

2010년 2월 1일 - 3월 31일

문의전화 02-587-8995

인도 및 제3세계	김선경 P0045253	김태우 P0045765
(주)동남솔라 S0045864	김선남 P0046168	김태윤 P0046206
강경순 P0046926	김선재 P0045223	김태형 P0033540
강영환 P0046208	김선향 P0020167	김태화 P0045288
강영준 P0045440	김선형 P0045174	김하나 P0016827
강소희 P0045915	김선희 P0045412	김학수 P0046322
강승윤 P0045057	김선남 P0045104	김혜미자 P0044789
강영걸 P0046925	김성미 P0045182	김혜영 P0041202
강영남 P0018879	김상수 P0045512	김현우 P0045063
강영숙 P0017866	김성심 P0046824	김현정 P0045219
강옥자 P0041946	김성훈 P0047074	김현우 P0046318
강은아 P0045401	김소연 P0045604	김현진 P0045215
강을진 P0046265	김소현 P0045611	김형균 P0045259
강인실 P0045457	김수경 P0045073	김혜정 P0016495
강진석 P0041903	김수연 P0045191	김효진 P0045527
강진숙 P00441517	김수진 P0046234	김후경 P0045192
강현 P0044865	김수현 P0045935	김희영 P0045148
강현기 P0046163	김수자 P0026542	김희정 P0045170
강혜정 P0046402	김수정 P0045186	김희정 P0045383
강훈 P0044863	김순애 P0046433	남계순 P0045839
경해표 P0045277	김순철 P0045279	남기준 P0045931
경해아(이)집 P0046404	김승규 P0045622	노주영 P0046350
교향속 P0011210	김승은 P0044467	대한항공조계동 P0047081
고현숙 P0045054	김승현 P0046989	도재현 P0045428
공지혜 P0045209	김애희 P0045609	류양준 P0045731
곽수민 P0045062	김연옥 P0012581	맹보연 P0044929
구현주 P0045844	김연주 P0045085	문상길 P0045617
권민지 P0044977	김영경 P0042192	문세훈 P0045529
권승용 P0047279	김영수 P0032483	문영옥 P0047041
권영아 P0047341	김영재 P0046324	문지은 P0034891
권혁준 P0047087	김영주 P0045248	문철호 P0020282
김기림 P0045374	김영희 P0045522	민경지 P0045534
김경미 P0045468	김용란 P0045411	민병선 P0045181
김경숙 P0044933	김윤민 P0044980	민조은 P0046405
김경자 P0038952	김원희 P0047435	박경숙 P0045747
김경진 P0046179	김유나 P0046320	박기정 P0039774
김경철 P0046177	김은영 P0045416	박민선 P0044976
김근렬 P0044971	김은정 P0044842	박상기 P0047148
김기연 P0046132	김인실 P0045439	박성기 P0045865
김나윤 P0042644	김인숙 P0045424	박세문 P0045060
김단영 P0044425	김인혜 P0046836	박소라 P0046386
김덕진 P0046183	김재철 P0044970	박수계 P0045497
김동민 P0045744	김재홍 P0009919	박수아 P0045493
김동운 P0047429	김정순 P0047195	박수영 P0046228
김로양 P0045179	김정란 P0046223	박수정 P0046226
김명기 P0046210	김정빈 P0045384	박수지 P0045357
김미경 P0045283	김정숙 P0045121	박순덕 P0020246
김미선 P0027765	김정연 P0045578	박수옥 P0021646
김미영 P0045853	김정자 P0022992	박순천 P0045101
김미자 P0035899	김정호 P0045211	박수아 P0045491
김민 P0045815	김정호 P0046254	박수정 P0045332
김민주 P0045376	김종훈 P0045271	박연주 P0046136
김반디 P0030976	김준수 P0045938	박영미 P0015997
김범용 P0044570	김자숙 P0045188	박영희 P0044969
김병호 P0045195	김지영 P0038968	박유돈 P0047267
김보경 P0039685	김지원 P0045427	박유진 P0046084
김보경 P0045112	김지혜 P0045540	박진순 P0032553
김보경 P0045555	김지호 P0045591	박진순 P0044611
김복희 P0045066	김철호 P0045510	박재연 P0045272
김서진 P0046246	김초롱 P0045378	박재용 P0045862
		박재윤 P0040221

박정민 P0031791	양경아 P0021852	이상호 P0043132
박정애 P0045692	양나래 P0045269	이선애 P0045217
박정임 P0045365	양영숙 P0041508	이성연 P0045852
박정현 P0045495	양영애 P0027825	이성욱 P0047178
박중희 P0045245	양은정 P0037961	이소라 P0045420
박지은 P0045858	양태라(이)집 P0047344	이수현 P0045050
박진영 P0045484	양주희 P0045453	이수연 P0046200
박창혁 P0016142	양창용 P0044989	이소옥 P0045939
박혜윤 P0046134	여우영 P0045355	이승협 P0045954
박화정 P0047150	염진영 P0045220	이매라 P0045208
박훈 P0036924	오기숙 P0013618	이영희(이)집 P0047171
박희정 P0044837	오미경 P0046241	이연호 P0045674
박희철 P0016905	오민제 P0033105	이옥희 P0046125
방명유 P0006639	오선옥 P0045214	이연순 P0045106
배우한 P0015124	오세욱 P0041040	이용직 P0021210
배윤숙 P0044991	오성경 P0045767	이우영 P0045779
배재용 P0046352	오준봉 P0045276	이원욱 P0045876
배중진 P0045366	오재은 P0044872	이원재 P0045607
배해자 P0023293	온진성 P0045363	이원탁 P0045176
백국옥 P0012378	온진호 P0045361	이유연 P0044934
백민석 P0046031	왕동연 P0044891	이윤경 P0045760
백소라 P0046349	우선주 P0044981	이은령 P0031537
백승애 P0045536	윤남사 S0045206	이은숙 P0045425
백승원 P0042591	원란 P0046417	이재순 P0045282
백영규 P0045274	원병성 P0045553	이재웅 P0045665
변은영 P0043234	원진경 P0046399	이정민 P0045635
변해경 P0045701	위월성 P0007182	이정순 P0045199
서광으로 P0047110	유금순 P0047346	이정희 P0046131
서미진 P0043826	유보섭 P0044931	이종석 P0044857
서미하 P0045278	유보성 P0047971	이주리 P0005409
서선영 P0047214	유인숙 P0046393	이준상 P0046328
서영주 P0045846	유재숙 P0007188	이준희 P0045285
서윤미 P0045461	유지우 P0045460	이지영 P0045605
서정자 P0045118	윤서영 P0046816	이지은 P0044064
생나규 P0047273	윤선아 P0046231	이지은 P0045180
소병찬 P0045841	윤성원 P0044858	이지은 P0045736
소호영 P0046325	윤소영 P0005045	이현수 P0044965
소명숙 P0044932	윤송희 P0047130	이현숙 P0045193
손미란 P0046135	윤은숙 P0039376	이현준 P0045257
손월선 P0046247	윤정우 P0031756	이현혜 P0037019
송다영 P0045187	윤혜준 P0045065	이희순 P0047199
송동호 P0045231	이기희 P0045454	이흥우 P0006564
송미화 P0046938	이강구 P0045678	임근 P0046359
송순자 P0006714	이경열 P0045456	임미화 P0045816
송아름 P0045462	이경찬 P0045368	임은빈 P0046360
송영성 P0044982	이경호 P0004073	임은주 P0047179
신명순 P0027612	이경희 P0044964	임한별 P0044937
신미영 P0045156	이광영 P0045213	임향순 P0045809
신상원 P0045859	이기팔 P0045385	자현 스님 P0046250
신승혜 P0045594	이나연 P0046157	장금례 P0046230
신재경 P0045797	이달원 P0045545	장동봉 P0044892
신호정 P0044410	이대근 P0043802	장문선 P0032948
신홍철 P0044866	이명우 P0046256	장신경 P0038528
심민지 P0045444	이미경 P0029666	장성봉 P0044916
애경(이)집 S0046429	이미정 P0045593	장예진 P0044219
안병욱 P0045099	이미화 P0045759	장우란 P0046199
안봉희 P0045910	이민희 P0044889	장우정 P0029036
안상현 P0043423	이병철 P0047348	장현준 P0044968
안숙향 P0023069	이병용 P0047111	장혜경 P0044870
안인숙 P0045433	이보은 P0045856	재연스님 P0038650
안재현 P0044973	이봉식 P0031500	전미자 P0045061
안희순 P0047196	이상숙 P0045688	전영숙 P0046292



※ 정기후원단은 지면할애상 제외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전영동	P0045290	추애자	P0045136	김경철	P0046177	김정화	P0015057	박은희	P0044873	오준봉	P0045276
전인영	P0036037	코너나눔팀	S0046388	김기현	P0046132	김정환	P0045045	박정옥	P0023194	오한선	P0046573
진해정	P0046255	하승찬	P0038241	김남남	P0025823	김주은	P0004459	박지영	P0046958	오한소	P0046570
정경범	P0026253	하승훈	P0042386	김대영	P0044910	김주희	P0040136	박지은	P0045858	왕동인	P0044891
정권화	P0010235	하지은	P0046009	김덕진	P0046183	김준형	P0047047	박춘신	P0039787	우선주	P0044981
정문기	P0045117	하지현	P0045595	김동영	P0045380	김중현	P0032027	박태욱	P0039749	우성현	P0045442
정문수	P0045720	한갑숙	P0044036	김동현	P0045221	김지원	P0023678	박태현	P0046614	원동연	P0045241
정미영	P0045552	한경이	P0042879	김로암	P0045179	김지원	P0046279	박혜영	P0045791	원란	P0046417
정민영	P0045628	한미순	P0046209	김영삼	P0045178	김지호	P0045591	박혜윤	P0046134	원숙희	P0045940
정선영	P0045417	한상원	P0045390	김영숙	P0044427	김철신	P0047426	박효순	P0042139	원자혜	P0015160
정성순	P0045297	한상학	P0046390	김영진	P0047427	김철호	P0045510	방명유	P0006639	원진경	P0046399
정소정	P0046110	한창미	P0046397	김문선	P0045140	김소룡	P0045378	백승애	P0045536	유금소	P0047346
정수경	P0036031	한창	P0045992	김문선	P0045375	김태우	P0045765	백승원	P0042591	유동욱	P0031195
정수민	P0029019	한해정	P0042155	김미경	P0045283	김태형	P0045288	백정원	P0045490	유보숙	P0044931
정순임	P0046380	한효진	P0045498	김미선	P0027765	김해마지	P0044789	백화순	P0046278	유용국	P0037907
정순택	P0045407	허은숙	P0045246	김미영	P0032290	김해영	P0041202	변채원	P0045250	유은수	P0045426
정아라한	P0045189	혜룬스님	P0047100	김미형	P0045273	김현우	P0045063	변해경	P0045701	유재성	P0007187
정연화	P0044818	호진	P0009423	김미희	P0045268	김현정	P0046225	서미진	P0043826	유혜련	P0044984
정은경	P0045450	홍경주	P0046813	김미희	P0046413	김현주	P0046318	서연이	P0045843	윤문성	P0046999
정의정	P0028759	홍성재	P0045421	김민경	P0046394	김현진	P0045354	서영호	P0044868	윤병진	P0043449
정재분	P0045185	홍수정	P0045210	김민선	P0045606	김형균	P0045259	서원	P0027621	윤병재	P0045226
정정숙	P0045032	홍영진	P0045774	김민수	P0045110	김혜영	P0046996	서유리	P0045429	윤서영	P0046816
정주열	P0038973	홍주형	P0046431	김민지	P0045196	김효경	P0046395	서지연	P0045615	윤석우	P0044914
정진경	P0044822	황경옥	P0046357	김보경	P0039685	김효기	P0045270	소호영	P0046325	윤성원	P0044858
정찬	P0046418	황선옥	P0038632	김복만	P0047228	김후정	P0045019	손동선	P0045943	윤자영	P0045111
정재용	P0046329	황은단	P0011051	김복희	P0045066	김희정	P0045170	손명숙	P0044932	윤정화	P0045486
정혜천	P0045387	황의선	P0045292	김삼배	P0040135	김희정	P0045383	손미란	P0046135	윤혜준	P0045065
정해숙	P0046383	황정환	P0045204	김사진	P0046246	나혜연	P0002545	손미숙	P0045814	이가희	P0045454
정원희	P0046362	황지은	P0045515	김선아	P0045867	남경연	P0046218	손월선	P0046247	이강구	P0045678
조민아	P0044475			김선재	P0045223	남기준	P0045931	손정은	P0042651	이경은	P0045228
조민아	P0045161			김선형	P0045174	노주영	P0046350	송다영	P0045187	이경주	P0044967
조성익	P0045666			김성미	P0045182	도영	P0015975	송영성	P0044982	이경찬	P0045368
조성천	P0045280	동남솔라	S0045864	김성심	P0046824	맹보연	P0044929	수정서(동회)	S0045997	이경훈	P0004073
조안나	P0045212	강명준	P0045440	김성훈	P0047074	모어진	P0045494	신기주	P0043695	이경희	P0044964
조애자	P0044799	강미라	P0045222	김소연	P0045604	문상길	P0045617	신미영	P0045156	이광영	P0045213
조유원	P0044845	강민경	P0045994	김수진	P0046234	문은상	P0029377	신상원	P0045859	이기팔	P0045385
조재호	P0012732	강소희	P0045915	김숙자	P0026542	문은주	P0046182	신시기	P0045159	이기현	P0047523
조진희	P0045052	강수경	P0044972	김순란	P0045120	문정호	P0011464	신순임	P0046178	이나연	P0046157
조철재	P0043960	강정혜	P0045796	김승은	P0044467	문지연	P0044867	신원소	P0032508	이동수	P0045788
조현주	P0009464	강진숙	P0041517	김애라	P0045500	문지은	P0034891	신재경	P0045797	이동훈	P0047049
조현진	P0045773	강현기	P0046163	김애희	P0045609	문철호	P0020282	신재욱	P0031012	이명숙	P0045551
좌윤주	P0046336	강혜정	P0046402	김영경	P0042192	민준은	P0046405	신현숙	P0045358	이문걸	P0045423
진영복	P0033818	경해린(미)	P0046404	김영경	P0045777	박경숙	P0045747	심예인	P0044712	이미화	P0045759
채은숙	P0042465	고민지	P0045287	김영미	P0005493	박근형	P0047046	심현정	P0045734	이민희	P0044889
천민영	P0045907	고정현	P0047002	김영섭	P0045499	박기열	P0024370	안승욱	P0045908	이배정	P0046361
청구어린(미)	S0046398	고현숙	P0045054	김영옥	P0046353	박미정	P0045996	안승훈	P0045154	이병철	P0047111
최선화	P0045113	고현진	P0012440	김영재	P0046324	박미정	P0045171	안인숙	P0045433	이보람	P0045547
최양희	P0043634	공다연	P0045517	김영주	P0045248	박미향	P0046109	안재현	P0044973	이봉성	P0046105
최연우	P0046339	공정운	P0044990	김옥분	P0045654	박민기	P0046252	안창자	P0042479	이상민	P0046106
최연희	P0045840	구민서	P0045364	김옥진	P0017533	박발남	P0037185	양경아	P0021852	이상욱	P0045688
최영이	P0045516	권기범	P0046678	김용란	P0045411	박보선	P0044976	양주희	P0045453	이선	P0044871
최예현	P0045819	권민지	P0044977	김원섭	P0047259	박상익	P0045198	양정웅	P0044989	이선민	P0046364
최원주	P0046593	권순용	P0047279	김유나	P0046320	박성배	P0045501	임우석	P0044986	이선혜	P0045116
최윤서	P0046367	권순자	P0016169	김윤주	P0027480	박수영	P0046228	여영현	P0045227	이성옥	P0045267
최윤희	P0039307	권애숙	P0045888	김이준	P0044836	박수정	P0046226	유우영	P0045355	이성희	P0046158
최은경	P0045194	권영두	P0022912	김재훈	P0047048	박수지	P0045357	염진영	P0045220	이성희	P0046212
최정심	P0045356	권영아	P0041534	김정관	P0047428	박순천	P0045101	오남소	P0022192	이소정	P0047255
최소룡	P0045372	코너나눔팀	S0046381	김정란	P0046223	박승정	P0045332	오말순	P0036460	이수연	P0045103
최종경	P0045230	김경남	P0046321	김정순	P0045173	박승정	P0045539	오미경	P0046241	이수현	P0045050
최지안	P0046365	김경미	P0045468	김정오	P0045541	박용규	P0029989	오순옥	P0045458	이순정	P0039436
최혜정	P0043088	김경자	P0038952	김정호	P0045211	박원규	P0038429	오연주	P0046253	이승혜	P0045377
최희영	P0047324	김경진	P0046179	김정호	P0046254	박은경	P0046156	오연진	P0045602	이애라	P0045208

북한어린이들기

새나눔회원 _ 개인 · 단체

2010년 2월 1일 - 3월 31일

문의전화 02-587-8995

이영민	P0045613	정기준	P0045455	한명기	P0007868
이영숙	P0012768	정문기	P0045117	한상학	P0046390
이영숙	P0046236	정문수	P0045720	한장미	P0046397
이영애	P0045589	정민영	P0045628	한혜정	P0042155
이영애	P0045842	정보균	P0044869	허항미	P0046221
이영우	P0047039	정상오	P0003894	현은지	P0045557
이영임	P0045286	정선령	P0045417	현황	P0045353
이영주	P0045459	정소정	P0046110	홍경주	P0046813
이영준	P0045902	정순임	P0046380	홍명익	P0046337
이영태	P0046085	정아라한	P0045189	홍사숙	P0006067
이영환	P0046695	정연화	P0044818	홍수정	P0045210
이용직	P0021210	정영성	P0045542	황경옥	P0046357
이우희	P0013415	정영주	P0045249	황석규	P0044979
이원재	P0044925	정일식	P0045492	황선숙	P0038632
이원재	P0045607	정정숙	P0045032	황연주	P0016541
이윤경	P0045760	정진경	P0044822	황의선	P0045292
이윤희	P0047385	정찬	P0046418	황혜경	P0013566
이인숙	P0045425	정태숙	P0045790		
이재순	P0045282	정형민	P0044988		
이정민	P0045635	정혜정	P0034406	북건건설	
이정석	P0046384	정희선	P0045359	안성철	P0046382
이정순	P0045199	조규복	P0044359	양영숙	P0041508
이정희	P0046131	조민아	P0044475	이찬규	P0046389
이종석	P0044857	조민아	P0045161	최영순	P0005859
이주필	P0045452	조성은	P0044874	한상학	P0046390
이준호	P0041883	조성천	P0045280		
이준희	P0045285	조안나	P0045212		
이지영	P0045389	조영석	P0046326	결핵퇴치	
이지은	P0044064	조은숙	P0046133	(주)동남승라	S0045864
이지은	P0045180	조재은	P0045299	강소희	P0045915
이지은	P0045736	조재호	P0012732	강진숙	P0041517
이지행	P0045158	조진주	P0038629	강혜정	P0046402
이재희	P0045333	조철래	P0043960	고환숙	P0011210
이타경	P0029941	조현진	P0045773	고현숙	P0045054
이혁재	P0043575	주영기	P0045251	공지혜	P0045209
이현숙	P0045193	주희원	P0045914	권민지	P0044977
이현주	P0045434	지정란	P0045225	김경자	P0038952
이현준	P0045257	진소연	P0046845	김병호	P0045195
이희정	P0007938	진영복	P0033818	김선형	P0045174
임경희	P0046358	진재호	P0025340	김성훈	P0047074
임미화	P0045816	차미향	P0045114	김소연	P0045604
임숙자	P0036817	최경자	P0045662	김수연	P0045432
임한별	P0044937	최경희	P0045521	김숙자	P0026542
임형순	P0045809	최선화	P0045113	김승은	P0044467
장미경	P0044919	최수진	P0045053	김영재	P0046324
장미진	P0014719	최수훈	P0045408	김영주	P0045248
장성봉	P0044916	최양희	P0043634	김용란	P0045411
장승희	P0044987	최영미	P0045516	김유나	P0046320
장정환	P0045789	최영희	P0026849	김윤희	P0046040
장진희	P0045851	최원미	P0044985	김조은	P0004459
장준희	P0046370	최은정	P0047383	김지영	P0038968
장혜경	P0044870	최은경	P0045194	김지원	P0023678
장효숙	P0045388	최은애	P0046107	김춘자	P0043719
전미자	P0045205	최정순	P0041017	김태우	P0045765
전익수	P0046292	최정실	P0045356	김해마지	P0044789
전영동	P0045290	최정호	P0046103	김혜영	P0041202
전인영	P0036037	최종경	P0045230	김현우	P0045063
전재현	P0045175	혜택애비집	S0046396	남기준	P0045931
전해숙	P0045818	하승훈	P0042386	노영호	P0038196
정경만	P0044875	하이안	P0045601	문상길	P0045617
정교필	P0045235	하효재	P0045155	문철호	P0020282

박나리	P0045190	구민서	P0045364	오미경	P0046241
박순천	P0045101	권민지	P0044977	오재은	P0044872
박희정	P0044837	권영두	P0022912	왕동연	P0044891
소호영	P0046325	김경자	P0038952	원숙희	P0045940
손월선	P0046247	김경철	P0046177	유금순	P0047346
신재경	P0045797	김기현	P0046132	유보섭	P0044931
여우영	P0045355	김다원	P0021369	유재성	P0007187
오미경	P0046241	김동진	P0045744	이가희	P0045454
오재은	P0044872	김미경	P0045283	이경찬	P0045368
왕동연	P0044891	김미희	P0046413	이경훈	P0004073
유금순	P0047346	김민선	P0045606	이광영	P0045213
유보섭	P0044931	김병호	P0045195	이상욱	P0045688
윤우진	P0046188	김복희	P0045066	이선해	P0045116
이기희	P0045454	김선아	P0045867	이수현	P0045050
이경찬	P0045368	김선정	P0045223	이용직	P0021210
이광영	P0045213	김선형	P0045174	이원재	P0045607
이규리	P0037248	김성훈	P0047074	이은평	P0031537
이동훈	P0047049	김소연	P0045604	이정란	P0045526
이상욱	P0045688	김승규	P0045622	이정민	P0045635
이수현	P0045050	김승은	P0044467	이정숙	P0044922
이용직	P0021210	김영옥	P0046353	이정희	P0046131
이인숙	P0045425	김영태	P0046324	이지은	P0044064
이정대	P0045507	김영자	P0045248	이지은	P0045180
이정민	P0045635	김애린	P0021370	이희정	P0007938
이정자	P0004917	김유란	P0045411	임소현	P0031174
이정희	P0046131	김우나	P0046320	임지현	P0039735
이지영	P0045605	김민혜	P0046836	임진오	P0046160
이지은	P0044064	김지은	P0006181	전익수	P0046292
이지은	P0045180	김조은	P0004459	정상섭	P0041675
이현수	P0044965	김지은	P0038968	정소정	P0046110
이희정	P0007938	김지원	P0023678	정순임	P0046380
전미자	P0045205	김창수	P0045138	정승희	P0031205
전익수	P0046292	김춘자	P0043719	정아라한	P0045189
정소정	P0046110	김태우	P0045765	정연화	P0044818
정아라한	P0045189	김해마지	P0044789	정연숙	P0045855
정주영	P0038973	김혜영	P0041202	조민아	P0044475
정효경	P0032627	김현우	P0045063	조안나	P0045212
조민아	P0044475	남기준	P0045931	조은지	P0046327
조성천	P0045280	노숙경	P0004483	조원형	P0046610
조안나	P0045212	노영호	P0038196	조철래	P0043960
조철래	P0043960	문상길	P0045617	주영훈	P0045912
최금연	P0039319	문세정	P0033925	최옥순	P0016810
최병순	P0046351	문영옥	P0047041	하나래	P0045603
하승찬	P0038241	문철호	P0020282	한병주	P0045058
한상학	P0046390	박기영	P0017684	한장미	P0046397
한정미	P0046397	박순천	P0045101	한종욱	P0045634
한혜정	P0042155	박윤희	P0045514	한혜정	P0042155
허은철	P0025213	박지영	P0039501	황선숙	P0038632
황의선	P0045292	박희정	P0044837	황의선	P0045292
황정환	P0045204	소호영	P0046325	황혜경	P0013566
황혜경	P0013566	손월선	P0046247		
		송미경	P0039378		
		신재희	P0045797		
		신현희	P0045769		

인도모자보건

(주)동남승라	S0045864	안재현	P0044973
강소희	P0045915	안지혜	P0042467
강진숙	P0041517	양숙희	P0045260
강혜정	P0046402	염은영	P0014457
고환숙	P0011210	오말순	P0036460
고현숙	P0045054	오미경	P0015983

특별후원금

2010년 2월 1일 - 3월 31일

인도 및 제3세계	윤소영	10,000원	김경남	250,000원	
(주)지노이드	1,000,000원	윤애주	15,000원	김광원	1,000,000원
강경순	1,000,000원	은현	60,000원	김명진	100,000원
강영결	6,000,000원	이관규	1100루피	김복만	20,000원
강진석	200,000원	이미경	50,000원	김 불	100,000원
김난주	500,000원	이소영	50,000원	김성수	120,000원
김기환	20,000원	이순이	1,000,000원	김세정	125,000원
김명훈 생일기념		이승협	10,000원	김옥희	100,000원
	50,000원	이엘디알티센타(주)		김옥희	100,000원
김미정	50,000원		1,300,000원	김우기	2,000,000원
김미정	50,000원	이엘디알티센타(주)		김원섭	50,000원
김병구	100,000원		7,000,000원	김이준	10,000원
김봉애	12,000원	이연옥	100,000원	김정국	50,000원
김승현	100,000원	인도 핸드 펌프 사업		김정순	1,000원
김애경	1,500,000원	이원욱	100,000원	김중복	500,000원
캄보디아 우물 사업		이주리	1,000,000원	김지원	15,000원
김정란	50,000원	이주형	30,000원	김철신	1,000,000원
김찬경	10,000원	이혜민생일보시	30,000원	김혜영	5,000원
김태윤	100,000원	이희숙	300,000원	김혜영	5,000원
김태형	300,000원	임춘옥	100,000원	김혜영	30,000원
김해마지	1,000,000원	장유정	50,000원	김혜원	41,000원
문상길	50,000원	정권화	31,100원	노희경	2,100,000원
문철호	50,000원	정세진생일축하	100,000원	무비	300,000원
박기엽	50,000원	정토법당(서울법당)		박근형	3,000,000원
박재윤	500,000원		2,000,000원	박미향	57,910원
박정민	100,000원	좌윤주	200,000원	박별님	70,000원
박지은	5,000원	최희영	30,000원	박선영, 박병규	300,000원
박창혁	300,000원	하은이	20,000원	박수민	1,000,000원
박현근	20,000원	하재남	100,000원	박원규	10,000원
배기선	30,000원	한갑숙	100,000원	박지영	10,000원
백국욱	100,000원	한경이	300,000원	박지은	5,000원
서성애	100,000원	허규인	100,000원	박진숙	1,000,000원
서창임	50,000원	황성보님의생일축하		박태현	10,000원
서창임	50,000원		300,000원	배영희	100,000원
손영희	50,000원	황수지생일축하	300,000원	백화순	30,000원
송순자	50,000원			백화순	30,000원
민다나오 수도 사업		서석곤	2,000,000원		
송은경	50,000원	북한어린이 돕기		서지연	30,000원
송은호	50,000원	강정숙	100,000원	손동선	20,000원
신영찬	50,000원	고정현	250,000원	송준영	100,000원
신효정	20,000원	고현진	300,000원	심호철	1,000,000원
안광민	70,000원	권기범	60,000원	오남순	70,000원
안상현	30,000원	권순자	20,000원	오미연	600,000원
오기숙	50,000원	권정화	100,000원	오봉열	100,000원
유효열	300,000원	권효중 생일축하	50,000원	오예린	10,000원

문의전화 02-587-8995

오한선	300,000원	최순호	122,800원		
오한순	1,000,000원	최영이영가기일2주년			
워싱턴정토회	252,08불		5,000,000원	인도도자보건	
유동욱	5,000원	최윤정	100,000원	김유정이정환 축결혼	
윤문성	50,000원	최은예	40,570원		
윤호진	50,000원	최정호	50,000원	이주현	50,000원
이기순	1,000,000원	하보경	30,000원	임성구	150,000원
이기현	100,000원	하은이	20,000원	임성구	200,000원
이배정	10,000원	하재남	100,000원	정승희	20,000원
이봉녕	40,070원	한경이	300,000원	문병두, 송정순영가	
이상민	34,900원	홍도연	78,000원		300,000원
이성희	1,000,000원	홍명익	30,000원	망 박기조영가를 기리며	
이성희	300,000원	홍사숙	100,000원		200,000원
이소정	30,000원			김중원카드 방이원	
이순정	50,670원				500,000원
이순정	30,000원	북한 재건		김중원카드발리지 수지	
이영태	30,000원	권경희	100,000원		500,000원
이영환	1,000,000원	김문희	100,000원	문병두, 송정순영가	
이우희	29,360원	김민경	100,000원		300,000원
이윤희	5,000,000원	문일곤	50,000원	김선애	50,000원
이재연	10,000원	서채원	30,000원	새하늘어린이집	50,000원
이한우	200,000원	서한승	50,000원	이진우	30,000원
이혁재	20,000원	손규리	64,900원	이광현	85,000원
이혁재	80,000원	송민령	300,000원	박종수	200,000원
이혜정	50불	안상현	50,000원	김원심	100,000원
임보성	100,000원	엄희택	1,000,000원	김경은영가극락왕생	
임성희	1,000,000원	이위선	20,000원		30,000원
장미경남건강발전		이효정	100,000원	이진남	500,000원
	100,000원	임관혁	50,000원	유지홍생일기념	50,000원
장미정	100,000원	임양호	100,000원	이동현	30,000원
전재현	1,000원	임춘옥	100,000원	장진영, 장수연	40,000원
정동희	250,000원	장영은	100,000원	김지연, 김동명, 김원민	
정종석	100,000원	정진희	50,000원		110,000원
정태호은호	20,000원	최영순	100,000원		
조경미	500,000원	황진호	300,000원		
조재은	500,000원				
조흥식	50,000원				
중수스님(정기원)	50,000원	결핵 퇴치			
중국김림성오성호남주식		김상완	100,000원	국내 총성금	
	20,000원	문길련	5,000원	116,433,654원	
진소연	36,150원	안광민	100,000원	1월(5일)-2월(28일)	
채은숙	5,000,000원	윤우진	100,000원	해외 총성금 53,168불	
창안사	1,000,000원	이동훈	50,000원		
최병일	530,000원	이동훈	50,000원		
최수훈	40,000원	이정자	200,000원		

나눔저금통 현황

2010년 2월 1일 - 3월 31일

→ 광주

광주법당 1,100 김판철외학생들 83,290 박병길 35,570 이판희 73,700 임영광 30,960 조광천 27,170

→ 김천

권태남 24,310 늘부부대찌개대구침산점 69,190

→ 대구

고미숙 31,160 김남수 28,000 김미정 15,830 김정희 91,000 김지현 10,470 김현식 14,480 김홍순2개 48,610 대구청안사 10,130 무명 18,060 무명 27,590 무명3개 100,870 문성해 29,580 박성욱 13,910 **삼성어린이집20개 170,110** (강수민 6,290 김기현 10,220 김규백 1,220 김민재 12,580 김민지 5,790 박규민 2,120 박성민 2,140 박소은 9,740 박시환 4,820 박지호 17,950 손시우 5,020 신소연 36,780 신현오 5,190 유민아 4,600 유정아 11,830 이재욱 11,890 장성찬 3,850 조인우 3,110 최은주 9,980 홍연우 4,990 손창원 26,770 신명희 30,730 안윤혜 30,260 염성희 25,500 윤경화2개 102,200 임명지 27,870 장세호 20,980 장소영 14,450 최진연 16,140 최진연 18,950 **포항보정유치원5개 143,560** (강민호 15,070 김경원 2,990 김민석 27,080 김민우 5,140 김병진 6,910 무명3개 18,600 유재민 7,310 윤유미 370 이보림 12,900 이상화 13,290 이재현 3,170 임소혜 14,260 정다민 16,470) 한주현 20,170 홍도연 46,170

→ 대전

김낙훈 77,660 김대웅 36,170 김동희 23,190 김병희 62,360 김바야술 26,990 김어진42,720 김영우 19,590 김용근 3,130 김은주 26,980 김은주 15,140 김정우 5,260 김정윤8,900 김정환 31,000 김정환 19,820 김정환 28,230 김중덕 14,410 김주원 27,700 김학수 30,000 김현수 14,890 대덕신협 19,170 라마스때2개 93,270 무명 22,610 무명 13,790 무명 14,520 무명 23,950 무명 46,870 무명 15,000 무명 31,850 박병준 28,090 박승우 33,470 박영대 24,560 박용문 50,000 박중현 75,570 박중현 42,000 박현숙 6,300 보부상슈퍼 21,730 성재훈 16,170 송화준 25,690 **쌍발여고220개 1,278,720**(2216 300 강미리 1,200 강민지 1,710 강민지 5,490 강주는 610 강지원 14,000 강희주10,850 경민 1,960 고병훈 4,870 고현주 10,680 교회형친구 2,320 꺾이술 1,680 객재영3,350 권문의 8,840 권영미 1,420 길가에 15,000 김경미 990 김나루 1,410 강남희 22,000 김다은 5,140 김미성 4,300 김민정 8,670 김민중 10,000 김민지 7,410 김민지 2,210 김보경 3,620 김선영 3,580 김소정 2,120 김수아 3,390 김슬기 3,340 김아름4,500 김연서 2,510 김연지 11,230 김유리 5,800 김유진 10,790 김은지 2,100 김은지2,510 김주희 3,490 김지혜 8,740 김진화 220 김초이 11,510 김초희 7,260 김한비 1,000 김해리 5,420 김향민 7,000 김현선 18,400 김혜중 17,400 김혜진 6,150 김홍경 550 김효정 2,390 김희은 7,950 나소양 9,000 나영은 2,500 남주희 4,770 노지영 3,010 다혜-혜린13,100 도은별 2,400 맑은,하늘 3,680 무명 1,900 무명 28,150 무명 16,890 무명 20,000 무명 5,400 무명 11,000 무명 9,100 무명 3,540 무명 3,540 무명 960 무명 3,500 무명1,170 무명 35,000 무명 310 무명 7,000 무명 2,000 무명 20,000 무명 30,000 민경6,570 민경.연진 11,470 민유원 11,260 비전 4,860 박경록 9,970 박선 5,220 박여정 2,680 박은송 2,060 박인희 18,230 박주란 10,140 박지민 4,340 박지숙 4,130 박지은7,120 박지현 7,900 박한솔 1,340 방선하 2,150 방은옥 1,360 백선희

문의전화 02-587-8995

2,860 백소현 10,030 백소희 12,600 백수경 4,120 백영주 5,880 백영주 2,200 백진경 11,040 보라2,100 보람,서원 1,830 빈나래 2,160 서송원 20,300 서예나 27,000 서지영 5,370 서지원7,520 서효지 2,460 성재훈 9,270 소유나 2,700 송란영 4,320 신나라 3,540 신남웅 6,660 신델라 2,100 신민정 2,100 신수정 1,660 심은지 7,470 안희남 9,480 여아람 5,570 영보 600 예림,송우 5,010 예술이겨 4,640 오세화 2,150 오연이 6,040 윤지 900 원정아 12,400 원지영 660 유원희 13,680 유윤진 3,420 유지영 2,450 유진 3,670 유진아2,300 유혜리 3,760 윤미 3,650 윤미선 5,320 윤재림 6,650 유주영 1,270 윤희 3,150 이가을 2,200 이건영 880 이나영 4,800 이남경 8,350 이보름 1,200 이상화 310 이선 4,450 이소미 1,000 이수빈 1,480 이수인 1,140 이순옥,성원 6,790 이승민 600 이아람 1,000 이아름 1,050 이연서 9,230 이영주 8,060 이윤희 2,130 이윤미 10,710 이은주 4,750 이정민 1,300 이진아 1,710 이찬양 7,630 이하영 3,000 이한민 1,790 이한빛 960 이혜인5,530 이현아 4,300 이혜민 11,690 이혜빈 1,050 이혜인 7,930 인영 6,000 인영,영은을 6,000인혜 9,500 임0009,200 임지나 6,200 임지0009,80 임현아 5,600 임혜009,800 임희 이혜인860 정문자 7,490 정지영 8,800 정지혜 2,000 정혜인 3,000 전주은 2,000 전재은 1,600 전혜지 7,020 정다운 2,080 정별이이혜인890 정옥이 9,180 정재홍 12,850 정하심혜인860 조다미 3,000 조이혜민31,69조인숙 묘 31000 조진양 3,300 조현옥 1,810 조혜원 2,140 지갑씨 3,400 지은 5,200 지은,기은 2,000 진영 3,250 진진주 4,480 천지연 5,600 최민희 6,230 최상자 5,780 최시은 1,300 최예민 2,300 최한별 4,760 최한리 2,000 최현아 3,000 친절한텐던 3,700 태지혜 2,410 한아름 7,120 한홍연 5,380 함혜영 1,200 헤민2 4,570 헤영 3,320 홍지숙 2,450 황사과 6,000 황윤선 2,000 oht 1,790 saim 1,770) 영하,경수 25,200 오민우 23,020 유동 10,000 유순호 24,300 유지현 10,000 윤영희 28,000 이금봉 25,980 이준희 22,410 임경란 37,200 장병윤 35,800 정경주 66,880 조옥현 58,900 진우현 22,000 최병용 50,000 최병중 50,000 최창희 26,000 한발생협2개 32,040 한정희 23,000 허영미 29,790

→ 동래

강민정강경희 24,010 도법문주 128,870 무명 75,350 무명 32,930 박준우 7,250 박지연7,930 법문주 155,750 사직여중3-4반 14,590 서원진 178,600 송현주 57,990 삼연주12,570 우현준 16,720 유진숙 29,420 윤산중학교2-3반 17,470 윤현주 22,700 이봉화 60,930 이수남 31,940 이수남 39,000 이어진 32,870 이정애 42,040 정원철 13,580 정현우 28,810 정감어플룸방 23,310 정감어스들방 3,700 최민서 3,690 최정숙 40,370 황혜옥20,700

→ 마산

강미경 22,255 강장식 16,240 거제계몽총동회교 685,050 김광자 34,140 김규승 7,845 김민섭 2,250 김삼선 52,890 김순혁 7,200 김영자 4,370 김창수 35,850 무명 8,570 무명 26,030 무명5개 52,100 문정아 16,530 박기영 1,240 박소미 6,190 박은지 15,080 박주현 16,130 배민재 9,400 뽕굶는집 8,370 뽕따구식육점 6,120 성지훈 3,300 안영실헤어뉴스 56,840 안태선2개 56,300 엄성준 35,250 유주형 5,890 이광현,이은지 27,360 이동원 11,200 이민정 2,100 이재경 35,780 이진우 26,140 이한길 17,620 장태구 4,700 전찬웅 12,900 정진희 33,450 조영승 18,330 천영희 22,800 최찬일 18,230 코롬사우나 6,010 한 살림경남 9,990 한 살림반송매장 40,430 한 살림성원매장 11,150 한살림월영매장

32,510 한 살림장유매장 3,600 황용일 16,120 황원주 43,300

➔ **목포**

김미영 17,890 박말레 17,030 송선옥 96,990

➔ **서울**

간디다시한번 31,150 강경신 63,200 강기범 27,920 강동수 14,710 강병규 1,250 강보경 40,600 강은지 1,910 **광동중학교 1,023,980** 경주강동농협 43,140 고진수 1,490 공윤경 16,760 권류경 15,760 권류경 12,200 권연순 20,160 권철주 9,860 김남호 12,060 김명희 26,330 김민영 1,990 김범수 38,820 김수연 8,770 김연이 8,410 김유정 10,910 김유정 21,770 김인태 11,600 김정환 67,140 김정희 26,890 김태령 79,020 김현정 29,530 김형순 17,620 김효숙 14,010 나소연 14,620 남윤지 16,090 대보정보통신기술연구소 22,510 도토리방과후 62,720 동천고2-9반일동 46,000 무명 23,300 무명 14,330 무명 15,680 무명 18,150 무명 31,600 무명 19,260 무명 18,900 무명 30,900 무명 15,060 무명 8,020 무명 79,000 무명 2,420 무명 18,050 무명 22,770 무명 45,700 무명 132,930 무명 22,500 무명 30,000 무명 22,360 무명 59,070 무명 35,410 무명 17,460 무명 21,090 무명 10,170 무명 19,790 무명 9,000 무명 39,750 무명 19,780 무명 24,630 무명 51,300 무명 5,410 무명 1,710 무명 2,630 무명 21,350 무명 7,310 무명 1,630 무명 15,900 무명 13,350 무명 11,840 무명 2,340 무명 12,680 민영철 정해윤 29,340 박남실 15,220 박소현 3,650 박연자 22,290 박정숙 18,790 박태욱 58,690 박현선 26,710 배다현 19,690 배진현 16,880 변문기 36,850 부천부흥중학교 81,540 복심농협 37,000 서울오봉초등학교6-10 22,020 서울집 7,100 서초1동우체국 43,710 성현미,장민우 9,990 성화영 39,250 손정숙 9,610 시지중학교3-11반 20,250 신동혁 14,280 신미경 18,500 신조 3,780 심성연 15,000 심유현 14,550 심해숙 40,410 오세은 3,730 오진미 36,500 왕선희 27,390 왕선희 27,410 우경미 54,360 워커힐카지노홍보팀 18,000 유상엽 26,620 유원 11,770 윤미경48,300 이덕기 22,930 이문자 22,420 이방희 2,880 이승은 38,830 이영옥 33,330 이예은 6,080 이은영 30,730 이정자 56,000 이정자 24,280 이준호,이윤주 60,310 이지연 35,560 이해연 25,620 이해연 22,580 이해연 19,960 이현주 24,590 임정복 24,800 임정복 25,670 임정복 26,860 임준호 4,950 자랑어린이날모금 41,100 자연드림한밭생협 41,110 장민준 35,730 장예진 31,340 장현화 15,310 재훈이 8,340 전동영 13,220 전지철 5,310 전형수,전상수 40,740 정영화 28,360 정윤자 106,340 정은자 29,830 정주영 16,570 정하점 8,750 차경호 12,540 채효정 30,670 천병준 14,710 천병준 7,820 최소임 3,380 최영록 3,210 최은경 24,740 최인미 22,570 최인옥 27,080 최해선 20,690 최현서 20,060 탐앤탐스남부터미널빌딩 70,630 탐앤탐스팩S 3,480 한혜경 12,530 허민지,허민영 23,620 홍경미 40,350 홍정현 6,020 황선정 1,700 황성혜 28,800 LG사이언스홀 17,750

➔ **울산**

경포회집 1,790 권현숙 10,060 김기숙 14,070 김윤경 26,910 김은하 25,980 김일윤 30,100 두북정토수련원 17,670 무명 15,020 무명 19,920 무명 19,110 박성자 32,830 박시훈 16,480 박은선 11,820 석남사기갈길 12,750 안인숙 55,720 여승은 43,970 여성진51,610 여인숙 26,400 오동희 15,230 오재정 14,500 옥동두 레쥘리행집 33,600 울산숯불길비 3,410 울산정교회 2,670 **월계초등학교4-1반24**

개 184,480 (권은서 5,320 김미림5,450 무명 650 문충희,성우 8,840 박성재 250 박정민 15,620 서준혁 2,550 손영찬 2,520 손예린 700 신재섭 2,750 안소현 29,390 월계초등4-1반 64,240 윤진희 790 이소래 590 이정섭 2,960 이지혜 14,090 이현지 4,920 임다정 3,840 임지훈 8,010 전나리1,160 장상우 2,780 정수정 1,750 정혜림1,150 황효은 4,160 은서 7,100 이병군 14,550 이승수 12,060 이승원 10,590 이승화 19,870 이운성 22,620 장숙희 30,700 정숙경(두북정토) 27,580 정정영 28,340 조춘희 14,200 통도사 35,730

➔ **제천**

박민주 34,290 서봉원 78,880 수명 23,510 유현옥 25,210 이은규(충주) 41,850 제천법당 35,260 조성은 33,530

➔ **청주**

강정자 30,330 광영애 21,820 기흥진 39,620 김보광 60,000 김승현 8,500 김영길 28,450 김중태 22,080 김진양 17,120 프란체마르 14,340 류인철 34,830 류형준 34,070 무명 16,730 박노옥 20,740 박현규 39,800 박정규 30,900 박준자 38,760 신미라 22,210 신선일 19,430 신지원 29,270 아해과학교실 52,330 오영주 24,330 윤규에 44,500 이수부 33,430 이순자 42,830 이영자 57,440 이윤선 33,850 이윤선 41,000 이은선 27,060 이종준 40,450 이주영 38,310 이항운 21,130 이현주 17,260 이혜선 38,340 장영수 21,370 조슬찬 21,620 조한솔 22,990 청주한살림 62,920 최용석 29,880 홍문당서적 29,600 홍재항 38,070

➔ **해운대**

강혜인(이화약국) 47,300 누릉지 23,650 무명 20,610 무명 32,310 무명 20,630 무명 18,780 무명 12,880 무명 27,460 무명 26,860 무명 16,610 박둘이 22,240 이서현 31,400 이옥순 48,000 장경숙 10,030 정종옥 15,560 최문숙 13,110 추현재 37,820 한정민 19,110 홍명기 15,330

➔ **독일**

무명 2,85유로 박정숙 170.4유로 송명덕 283.46유로 안그라 42.40유로 이봉희 55.61유로최정철 55.85유로

| 거리 모금 현황 |

7차선재수련팀 1,159,210 김천 315,540
 대구 470,660 대전 245,350 동래 667,150
 마산 1,647,770 마산코오롱사우나 599,930
 방콕정토회 \$90 부산짜이집 400,000 서울 332,050
 아름다운가게홍대점 183,850 울산 335,980
 충훈고등학교 183,720 해운대 208,92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즐거운 자원활동



비우는 삶
+ 재능, 특기
+ 시간



인터넷 접수
+ 인터뷰
+ 활동 교육



JTS 자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우는 삶

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재능, 특기, 시간으로 돕습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따뜻한 보람이 채워집니다.

해외 자원활동

장기봉사활동으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분야 건축, 농사, 회계, 태권도, 예능교육, 의료, 언어 등

국내 자원활동

한시간 국내봉사가 아이들의 연필, 가방, 교실이 됩니다.
자원 봉사 번역, 녹취, 홈페이지 관리, 영상 제작 및 편집 등 활동 봉사 물품정리, 거리캠페인, 나눔저금통 관리 등

우리가 행복해지는 고마운 나눔회원



소박한 삶
+ 원하는 나눔
기금 선택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JTS 나눔 회원이 되셨습니다.

심승현 작가님의 '파페포포 레인보우'는 다음포털 만화에 연재중입니다.

소박한 삶

적게 쓰고 적게 가지는 소박한 생활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JTS나눔 기금 02-587-8995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 돕기 결핵퇴치 모자보건 북한개발 해외간급구조

참여하신 분들은 전화로 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회원이 되신 분들은 JTS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JTS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

해피빈나눔 happylog.naver.com/jtstogether 에서 참여하세요
나눔저금통 작은 동전도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투명한 기금 운영 알기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JTS재정을 공개합니다.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기금 운영과 지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JTS희망나눔미 파페와 포포입니다